

'태권시티 무주' 저력 확인

무주군,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쾌거... 3회 연속 개최지 명성 획득

무주군이 지난 12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도시로 최종 낙점됐다. 무주군은 대회 조직위 구성 및 개최 도시협약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포인트 획득과 신인선수 발굴 등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주최하는 것으로, 올림픽 4체급(남·여) 겨루기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의 참가 규모는 45개국 2천여 명 정도로 무주군은 태권도원은 물론, 지역브랜드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이자 태권시티 무주 도약의 해에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며 "213개국 1억 5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이 열원과 무주군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유치한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 성지에 걸맞은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무주반딧불축제 등 지역 행사들과도 연계해 지역 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태권시티 무주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발판, 태권도인 모두의 축제로 인정받는 대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이 지난 12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도시로 최종 낙점했다.

로 인정받는 대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12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2024 파리올림픽 참가 국제심판·코치 합동 캠프" WT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태권도 성지를 향한 비전과 △대회 유치 의지 및 운영 능력, 그리고 △기반 시설 등을 내세운 '태권시티 무주 비전' 발표(황인홍 무주군수)와 '대회 유치 제안' 설명(서재영 부군수)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숙소, 훈련장 등을 두루 갖춘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2022년과 2023년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대규모 태권도 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무주군이 추진 중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태권브이 랜드 조성, △태권마을 조성(해의사범 귀국와 사업), 그리고 △태권어드벤처 챌린지 운영 등 태권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이목을 끌었으며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세계스포츠타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 세계태권도 육타콘 다이아몬드게임 등 5건의 국제대회와 4건의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시티 무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전달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에 냉동 탐차 지원해 기동력 있는 사업 추진

장수군은 13일 군청 앞 광장에서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최훈식 군수,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장수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장수읍장,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에 EV 냉동탐차를 전달했다.

군은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냉동 탐차를 운행해 물품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 배달 시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위험요소 정비 등을 지원해 복지·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기동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민간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차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관협력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예방



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장수읍 시범 마을 행복정거장 13개소(복지·안전 취약 오지마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인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한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장수군(군수 최훈식(사진))은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관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 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이행자료를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등 5개 항목에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군민

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지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 키우는 미래교육의 5대 분야 7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37건의 사업 추진이 완료돼 53%의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율리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훈식 군수 주재로 공약사업 보고회를 진행해 70개 공약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약 추진상황과 사업방향 조정을 위한 군민배심원단도 활발히 운영해 왔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마늘·수박 재배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전춘성 진안군수는 마늘 재배와 수박 수직재배 현장을 찾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진안군은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로 마늘재배 사업을 5ha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추산지 일관계획화 사업으로 마늘파종기, 건조기, 절단기 등의 농기계를 구입,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작업 단계에서 기계화를 준비 중이다. 수박은 수직재배가 가능한 하우스

0.3ha를 조성 중이다.

진안 마늘재배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준 고품질인 진안이 마늘재배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겨울철 소득작목로 재배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박 수직재배는 농가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어, 사전에 농가 애로사항을 검토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읍면 연초 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2차 보고회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연초 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2차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2월 27일 1차 보고회에 이어 2024년 연초 방문 기간 수렴한 주민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건설 358건, 복지 47건, 환경 28건, 농업축산 27건, 안전 26건, 상하수도 22건, 관광 20건, 문화체육 14건, 기타 67건 등 총 609건으로 실과소별 현지출장 및 주민 우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건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76건은 완료했으며, 137건은 2024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4건은 2025년 안에 마무리하고, 관제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329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43건은 불가로 분류했다.

군은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수배 종목별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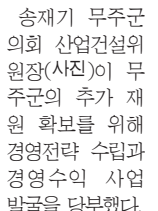
진안군은 지난 11일 진안군수배 게이트볼, 축구를 시작으로 종목별 대회가 열렸다.

이번 종목별 대회는 총 19개 종목으로 전년도 13개 종목에서 6개 종목이 추가되었으며, 대회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18일에는 그라운드골프, 19일 당구와 궁도, 25일 테니스 등 11개 종목이 치러진다. 산악과 골프는 추후 개최 예정이다.

게이트볼 등 3개 종목이 치러진 11일에는 총 21개 클럽 310여 명이 참가, 진안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게이트볼대회는 백운팀, 진안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축구경기는 진성 FC, 용담승마클럽에서 열린 승마는 김하람(Class 40cm), 황예린(Class 60cm), 임이윤(Class 80cm), 김재혁(빙자투 타고 들어오기), 유연아(권승경코스 돌아오기)가 우승을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경영수익 전략 세우고 관급자재 발주 신중"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5분 발언



송재기 위원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수익 전략은 시설 조성 기획 단계부터 경영적 관점에서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반디랜드, 외인동굴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송재기 위원장은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개발 수익 외에도 지역 내 토목과 건축 관련 기업 매출과 일자리 활성화, 취·등록세 등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주군의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또한 무주군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관급자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 관급자재 발주 기준(공사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 3억원 이상)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발주는 수주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하고 공정과 하자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쓰지 못해 지역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선순환 되도록 소규모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기 위원장은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지, 예산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각종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를 줄일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